

##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언어에 대한 신학적 이해—

양명수

### 1.

기독교는 말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자들만큼이나 말이 많다고 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다. 그러나 기독교를 말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가 말에 희망을 두는 종교라는 점에 있다.

성서에서 태초에 관해 기록한 부분은 창세기와 요한복음인데, 거기서 모두 말이 강조되어 있다. 하느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얘기는 바빌로니아의 에누마 엘리시 창조 이야기와 달리 세상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기원에 폭력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이야기에는 신들의 우주적인 전쟁과 싸움이 마르둑의 승리로 끝나고, 패배한 신의 시체 조각으로 세상이 생겨났다고 전한다. 죽은 여신의 시체 조각과 죽은 남신의 피로 범벅이 되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서에 따르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처음에 어떤 폭력 없이 '말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말에 흔히, '말로 하라'는 것은 비폭력을 의미한다. 원래 세상은 비폭력적임을 말해 주는 것이 창세기의 얘기다.

---

양명수\_기독교윤리, 철학적 신학.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장. 저서로는 『호모 테크니쿠스』 『근대성과 종교』 『음이 말하다-고난의 신비와 신학』 등이 있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때 꼭 폭력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무장 서를 너무 염려하는 사상에서는 세상(코스모스)이 만들어지는 데 폭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어느 정도 억압적인 힘이 없으면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세상의 질서는 폭력에 그 기원을 두고 있지 않다. 창조란 언제나 사랑과 힘의 긴장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데, 그 힘은 원래 폭력적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말의 힘이다. 말씀으로 창조한 얘기는 초대 교회 교부들에 의해 '두로부터의 창조'와 연결되었다. 플라톤의 창조론과 달리 아무런 질료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기독교가 바라는 새 세상은 기본적으로 말의 힘과 연관된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말로 창조했다는 것은 말의 창조성을 암시하고 있다. 말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새 세상을 만들고 바꾸는 힘을 지닌 것이다. '말 따로 힘 따로'가 아니다. 힘이 실리지 않은 말은 참말이 아니다. 성서에서는 말과 행동의 구분이 없다. 언어는 언어철학자 오스틴이 말하는 용어로 하자면 수행적(performative)이다.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은 참말이 아니다. 참말은 세상을 새롭게 하면서 세상을 살린다. 희망의 중심에 말이 있다. 그리스 사람들 역시 생산을 언어로 생각한 흔적이 있다. 그들이 말하는 포이에시스(ποίησις)는 생산인데, 그것은 오늘날 시를 가리키는 말이다. 말이 세상을 낳는 생산 활동의 핵심에 있다. 인간은 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있지만, 말로 만드는 세상이 있다. 자연과학 언어는 사물 이후이지만, 시 언어로 대표되는 상징 언어는 사물 이전에 사물을 만들어내는 언어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다시 그려 새 세상을 만들어 내는 언어다.

말에 희망을 두었다는 것은, 창세기 저자가 세상의 폭력성을 보려고 너무 낙관적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과 폭력이야말로 그들의 관심사였다. 세상의 질서 속에 폭력적 힘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창조설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폭력을 그 기원에서 원리적으로 거부하려는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 기독교는 악의 만만장음을 인정하는 가

운데, 그것을 원리에서 거부하는 쪽을 택한 종교다. 악은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이 창세기와 종말론에 담긴 기독교의 세계관이다.

창세기 4장에는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사의 처음에 폭력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은 모두 카인의 후예로서 폭력적 세상을 만들고 그 세상 속에서 서로를 누르고 놀리며 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폭력은 매우 뿌리 깊은 것이다. 우리 삶과 인격 속에 매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한자어에서도 나를 가리키는 아(我)는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언제부턴가 나의 존재는 공격성에 의해 유지되고 보장되는 세상이다. 인간이 본래 폭력적이기보다는 세상이 폭력적이어서 인간 또한 폭력적이 되었다. 물론 그 폭력적인 세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말이다. 서로를 억압하는 것이 사회의 관습이 되고 그런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는 인간 또한 습관적인 폭력성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러한 사회적 관습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 원래 이 세상에는 폭력이 없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성서의 얘기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종교적 민족 공동체의 영성이 시작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출애굽기는, 파라오라고 하는 당시 최대 권력자의 폭력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을 찾아 나선 이들이 경험한 하느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폭력은 인간의 기억의 초창기부터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신 체험의 기원에 자리 잡고 있다. 뿌리 깊은 폭력과 그 폭력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구약성서의 종교 체험의 기본 환경을 이룬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로 시작되는 인간 역사의 뿌리 깊은 폭력. 그러나 원래 세상은 것처럼 폭력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선언. 그 '원래'가 태초다. 태초는 시간적인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태초는 시간이 아니다.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찾기 위한 근거이다. 카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기독교가 본 인간의 최초 상황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최초 상황이란 말은 기독교가 종교로서 영성을 형성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폭력이 얼룩져 깊은 무의미 속에 빠진 세상이라는 말이다. 기독교

가 마련한 해방의 과정은 거기서 시작한다. 폭력은 칸트의 근본악처럼 '뿌리 깊지만', 세상이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것이 '최초'와 '태초'다. 인간의 타고난 폭력성 속에서 원초적인 비폭력의 선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성서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다.

## 2.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었다(요한복음 1장). 여기서 말씀이란 그리스 말로 로고스다. 로고스에는 원리(ratio)라는 뜻이 있고, 동시에 말(oratio)이라는 뜻이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원리보다는 말이라는 의미를 취했다. 원리(ratio)라는 뜻의 로고스는 그리스의 누우스(nous), 영어의 리즌(reason)과 같은 것으로 존재의 근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은 인격적이지 않은 중립적 원리다. 중립적 원리로서 매우 초월적이다.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理)도 마찬가지다. 리는 말이 없다. 정약용 역시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성리학과의 차이를 그런 점에서 발견했다. 말하자면 그리스의 철학이나 스토아학파나 성리학에서는 태초에 말없는 리가 있었던 셈이다. 말을 하는 것은 한 차원 낮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월적 존재가 세상과 접촉하는 지점을 놓고, 말보다는 말 없는 리 또는 원리를 얘기했던 것이다. 퇴계 같은 분은 리가 세상[氣]을 낳는 문제를 놓고, 리 안에 체(體)와 용(用)을 나누었다.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을 리의 체가 아닌 용으로 봄으로써, 리가 세상과 접촉하면서 초월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성리학의 경우에는 세상이 초월적 원리인 태극 곧 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리에서 태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태극의 초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퇴계는 독특한 논리를 편 것이다. 그만큼 퇴계의 성리학에는 리의 초월성이 강조되어 있다. 대개 초월적 존재를 믿는 모든 종교에서 그 초월자가 세상과 접촉하는 부분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슬람의 알라는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절대 타자이고,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는 질료를 입혀 사람을 만들 때 그 일이 천하므로 다른 신을 시켰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느님의 초월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세상과 접촉하는 하느님인 성자를 성부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 문제를 놓고 초대 기독교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였는데, 결과적으로 성자와 성부는 동일한 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서양의 기독교 역사에서 신은 인간과 관계하는 분으로만 신이라는 말이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성부로서 매우 초월적인 신이지만, 동시에 성자로서 세상과 접촉하고 함께하는 신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로고스 곧 말씀이 성자 하느님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느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은 성자가 성부와 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느님이라는 것은, 성자도 하느님 자신이라는 것이다. 거기서 확보된 것은, 하느님은 이 세상없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하느님이 세상을 낳은 것은 아니고 만든 것이지만, 그래서 그만큼 세상은 하느님과 종속 관계에 서지만, 세상과 인간이 없는 하느님은 없다. 삼위일체는 그 점을 말하려고 한 것이다. 기독교의 하느님에게 세상과 인간은 필연적 사건이다. 기독교가 아무리 초월적 신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말씀이신 하느님을 믿는 한, 신학은 인간학적인 전제 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하느님을 말씀으로 본 것은, 인간을 하느님의 말 상대로 본 것이다.

말의 본질은 말의 내용보다도 말을 건네는 데 있다. 말을 걸고 말을 붙인다. 무엇인가를 말하지만, 말의 내용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하는 그 자체다. 우리가 흔히 인사말로 하는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다' 같은 말은 그 내용보다도 말문을 트는 말들이다. 말문이 열리면 협상을 하든지 사랑의 말을 속삭이든지 아니면 정보를 교환하든지, 말의 내용이 중요한 말들이 시작된다. 그러나 말의 본질은 바로 그 인사말에 있다. 인사말의 내용을 가지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우스운 사람일 것이다. 인사말은 나는 당신과 말문을 트고 싶습니다, 혹은 적어도 나는 당신과 관



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지 않다고 하는 평화 선언이다. 아무리 무심히 내던진 인사말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인사말은 말을 건네는 말이요, 말을 붙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것처럼 상대방에게 말을 붙이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서 본 언어의 본질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내게 말을 건네고 말을 붙이는 하느님이 있었다는 말이다. 말을 붙이는 인사말은 원래 하늘의 언어요 신성한 언어다. 우주의 기초적인 힘이 언어성을 띠고 있다는 것은, 하느님이 처음부터 내게 말을 건네는 하느님임을 말해준다. 내게 말을 건네는 하느님으로서만 창조의 하느님이다. 그것은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Sein)의 언어성과도 다르다. 그가 말한 존재(Sein)의 언어는 언어의 계시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언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기 전에 진리가 드러나는 길이라는 것이다. 거기서 언어는 말을 하는 것이기 이전에 말을 듣는 것이다. 말은 인간이 하는 것이기 이전에 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는 현대의 언어가 '하는 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인간학을 존재론으로 수정하고 존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말의 핵심을 들음으로 보려고 했다. 그것은 모든 종교의 언어관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 말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현대의 해석학은 그런 하이데거의 존재론과 어느 정도 관련이 없을 수 없다. 기독교에서도 말은 먼저 하느님 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시적 성격을 띤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을 하기보다 말을 듣기를 요구한다. 말을 하는 사제도 원래는 들은 말을 전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이 말'이라고 한 요한복음에서 말은 단순히 계시적인 의미만을 지니지 않는다. 단순히 일방으로 진리를 드러내고 가르치는 하느님이 아니다. 말씀이신 하느님은 먼저 내게 말을 건네고 붙이는 하느님이다. 그것은 흔히 동서양의 인문주의 전통에서 하늘의 소리를 명령으로 알아듣는 것과도 다르다. 인문주의에서는 하늘을 거론하더라도 그 하늘의 소리를 내 양심을 향한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으로 알아들으며, 그러므로 그것은 양심의 '소리'일 수 있지만, 말이 아니다. 말의 본질은 중립적인 규범을 명령하는 데 있지 않고, 말을 붙이는 데 있

기 때문이다. 그 누구를 홀로 놔두지 않고 함께 하는 데에 말의 본질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계시의 하느님이기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것은 임마누엘 곧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한량없는 위로를 표현하려는 것이다. 말은 말을 붙이는 것이고, 말을 붙이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며, 함께 한다는 것은 위로를 의미한다. 복음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인 까닭은 거기에 있다. 성서는 내게 말을 거는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한다. 태초에 위로가 있었다. 우주보다 더 오래된 위로가 있었다. 인간의 '최초' 상황을 폭력적 억압과 소외로 본 기독교가 '태초'에서 희망을 찾는 방식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현재의 인간의 삶이 그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본다. 물론 불교처럼 연기론적인 사고를 하지 않고 실체적이고 주체론적인 사고를 통해 기독교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연기론적인 사고에서는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이 애초에 없지만, 개인의 실체성을 중시한 기독교에서는 그 개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폭력으로 진정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본다. 윤리 규범이나 율법은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관계가 완전히 끝나서 서로에 대한 영원한 폭력의 연속 또는 복수의 연속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현재의 선과 악을 규정하는 도덕규범이나 법 규범이다. 그러나 그 규범들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지향하지도 않는다. 인간은 나와 남 사이에, 내 자식과 남의 자식 사이에, 내 편과 다른 편 사이에, 내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산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이 안 통하는 세상에 산다. 말을 붙이지 않고, 적당히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다. 외면은, 말을 걸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얼굴은 내게 말을 걸고 싶어 하지만 적당히 그 얼굴을 외면하며 산다. 소통의 단절과 소외는 인간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외면하고, 말문을 막고 있다. 말의 단절은 무의미를 만들고, 잠재적 폭력을 이룬다. 말로 안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아주 뿌리 깊게 무의미와 폭력에 깊이 잠겨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을 위로하는 하느님을 구원

의 하느님으로 본다. 그 무의미와 폭력의 본질에 외면이 있고, 외면은 말의 단절이고, 말을 건네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먼저 하늘 쪽에서 내게 말을 건네 온다.

### 3.

말을 건네고 말을 걸고 말을 붙이는 것은 상대하는 것이다. 말씀이신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위로의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느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방식이 말을 건네는 것이면, 거기에는 서로 상대하는 관계가 생겨난다. 위로는 상대로 가지 않으면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 적어도 말씀이신 하느님의 위로는 인간을 상대하는 방식으로의 위로요 그것은 인간의 주체성을 낳는다.

절대가 아니라 상대다. 말씀이신 하느님은 절대자가 아니다. 절대자는 상대하지 않고 베풀어 준다. 거기에는 말이 없다. 말대답을 못하게 하고,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인 지시만 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지시의 말은 말의 본질이 아니다. 과거에 계시를 그런 식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말 잘 듣는 것이 중요한 덕목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씀이신 하느님은 인간을 상대하시는 하느님이다. 기독교는 성부에게서 절대자를 보고 성자에게서 상대하는 하느님을 본 종교다. 절대자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을 본 자는 죽는다. 하느님은 인간의 상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성자)를 하느님으로 믿는 데 기독교의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의 신관에는 기본적으로 상대하시는 하느님이 깔려 있다. 사람은 하느님의 상대다.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느님의 상대가 안 되지만, 말을 건네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상대가 된다. 상대가 안 되는 나를 상대해 주시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의 은총은 일방으로 무얼 베풀어주는 것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나를 상대해 주시는 데 있다. 거기서 인간이 크다. 상대하면 상대방이 크다. 그래서 절대주의 시대에 윗



사람은 아랫것들을 상대하지 않은 것이다. 상대(相對)는 서로 대하는 것이므로 마주하는 것이다. 마주하는 것은 맞서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하느님의 절대성이 파괴될 수 있다. 더구나 상대하면 상대방의 영향을 입지 않는가. 인간의 고통이 그대로 하느님의 고통이 된다. 영향을 주되 영향을 입어서는 안 되는 하느님이 영향을 입는다. 그러한 하느님의 수동성(passivity)에 하느님의 수난(passion)의 핵심이 있고, 그것이 하느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신 하느님은 하느님만 주체가 아니라 인간을 주체로 만든다. 상대한다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주체 대 주체의 관계에 서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성서의 신은 휴머니즘을 안고 있고, 신의 죽음의 위기를 안고 있다. 하느님이 사람을 상대하면서 사람이 하느님에 맞먹게 되면 신의 죽음이라는 문화 현상을 낳게 된다. 말씀이신 하느님은 무신의 위기를 안으면서도 인간을 끝까지 상대해 주시는 하느님이다.

거기서 인간의 말이 탄생한다. 내게 말을 붙이며 상대하는 하느님이 이끌려 사람은 입을 연다. 하는 말은 거기서 탄생한다. 인간이 말을 하기 전에 하느님이 말을 붙이시고, 사람이 말하는 동물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말씀이라는 것과 짝을 이룬다. 여기서 언어는 언어학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에 기대어 사람은 할 말을 한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이다. 할 말은 억압에서 생긴다. 억압이 많은 사람이 할 말이 많다. 그리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누구나 할 말이 많다. 사람은 존재의 근거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고, 타자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 그 모든 것이 억압을 낳기 때문이다. 단절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억압이고, 거기서 억울한 폭력 행사가 일어나므로 할 말이 많다. 그래서 만물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그리움의 언어가 되어 시를 낳기도 하고, 억눌림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따지는 언어가 되어 과학적 언어가 되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이 할 말을 하는 말이다. 할 말을 하면서 인간은 당당해진다. 그리고 그런 주체적인 관계는 정의를 만

들어 낸다. 정의란 할 말을 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말하는 위로의 하느님 또는 사랑의 하느님은 정의를 폐하지 않는다.

말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이다. 말을 건네시는 하느님을 닮아 사람은 타자에게 말을 붙이는 관계적 존재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하시는 하느님을 닮아 사람은 서로 할 말을 하면서 타자를 상대한다. 하느님의 형상은 그리스 철학에 따르면 누우스 곧 정신 또는 이성이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도 그렇게 많이 해석했다. 성리학에서도 우주의 리가 모든 존재에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다고 함으로써, 리가 기를 낳은 것처럼 해놓았지만, 다시 기질의 차이에 따라 신통방통(神通旁通)할 수 있는 온전한 리를 갖고 있는 존재는 인간으로 봄으로써 인간을 다른 존재보다 높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나 성리학이나 인간을 다른 존재들보다 높이는 길을 이성에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느님의 형상이란 말이다. 말 때문에 인간은 하느님의 말 상대로서 하느님의 상대가 된다. 말씀이신 하느님은 사람이 할 말을 하도록 이끌고, 사람을堂堂하게 만든다.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주체 내 주체의 관계가 된다. 거기서 하느님은 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 말을 듣는 분이 된다.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계시적 언어가 있다. 하느님의 계시 언어는 인간의 고통의 언어에 대한 응답이다. 사람의 고통의 울부짖음 또는 사람이 할 말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느님은 말을 붙이는 말을 넘어 비로소 할 말을 하신다. 할 말을 하는 말 없이는 하느님의 계시도 없다.

## 글을 마치며

그리고, 마주하는 것은 맞이하는 것이다. 마주하면 험한 세상에서 서로 맞서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 결국 맞이한다. 물론 할 말을 하는 말 때문에 서로 맞설 수도 있다. 인간과 하느님의 맞섬은 욕과 같은 인간의 무신론적인 저항으로 나타난다. 인간과 인간의 맞섬은, 언로가 트였을

때 모두들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집단적 이해관계의 충돌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마주하면 맞이하게 되어 있다. 맞이하는 것은 할 말을 하는 것을 넘어 말을 듣고 품는 것이다. 인생의 문제는 할 말을 한다고 다 해결되지 않는다. 다시 듣는 말로 간다. 상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만물의 세밀한 말을 듣는 것은, 말을 붙여 인간의 말을 듣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실 시 언어는 할 말을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거의 말하지 않은 말이다. 오히려 듣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적 언어다.

마주하고, 그 마주함이 맞섬을 낳는 것을 거쳐 맞이함으로 가는 데 언어가 있다. 성서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얘거나,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 속에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여정에 언어를 두고자 하는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들어 있다. 언어는 말을 붙이는 것이면서, 할 말을 하는 것이면서, 말을 듣는 것이다. 맞이하는 데에 마주해서 맞섬을 거친다는 것이 기독교의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다. 하느님을 말과 동일시하면서 가져온 결과다.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의 신 자체가 무신론을 품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다. 그것이 성서의 사람들이 택한 인간 해방의 길이다.